

‘좋은 책’ 선정작업의 현황과 문제점

각급 기관·단체서 꾸준한 활동... 도서문화 정착 위해 내실 다져야

올해는 ‘책의 해’이다. 이때의 ‘책’이란 ‘양서’의 준말임은 불문가지이다. 책의 해에 벌어지는 모든 사업의 핵심은 양서가 널리 그리고 꾸준히 읽힐 수 있는 독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는 점 또한 두말할 나위없다. 한 해에 수만종씩 쏟아져나오는 책들 가운데 양서를 ‘걸러내는’ 작업은 올바른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된다.

흔히 말하는 ‘성숙한 독자’들이 나름의 안목을 가지고 필요한 책을 스스로 골라내면, 그것이 양서를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터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에게는 베스트셀러 목록이 베스트북 목록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때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기관과 단체들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양서를 선별해 준다면 읽는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업의 방법은 시상·선정·추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상은 양서에 대해 상금을 주고, 선정은 양서를 구입해 해당도서를 발간한 출판사와 저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추천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 반사이익을 제공케 된다. 설혹 시상·선정·추천되지 못한 책일지라도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책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걸러지는’ 책의 중수가 발간되는 중수에 비해 월등히 적을 뿐더러 심사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책”과 “팔릴 만한 좋은 책”

이 같은 작업을 행하는 기관과 단체들에서 마련한 양서의 기준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한국일보가 제정한 ‘한국출판문화상’과 문화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추천도서’ 등 오랜 연륜과 공신력을 확보한 기관에서 추천한 양서목록은 대체로 “광고 한번 못낼 정도로 상업성은 없지만 매우 가치있는 책” 위주로 채워진다. 즉 고전 또는 학문적 성취도가 높은 전문적 학술서로 평가될 만한지의 여부가 양서의 기준이 된다.

두번째로 서점과 출판사들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서의 개념을 “팔릴 만한 좋은 책”으로 규정한다. 그러한 원칙에 의거해 나름대로 양서목록을 작성해 발표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창간된 신간정보지인 월간「신간안내」에서는 서울시내 대형서점 8개사가 인문과학·컴퓨터·아동도서 등 8개의 분야를 나누어 맡아 “서점의 명예를 걸고” 선정한 “팔릴 만한 좋은 책” 10권씩이 소개되

한 해 수만종씩 쏟아져나오는 책 가운데 독자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고르기란 매우 어렵다. 책의 선택에 있어 베스트셀러목록이 영향력있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권위와 엄정함을 지닌 기관과 단체들에서 양서의 선정과 추천이 필요한 이유도 그것이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과 그 사업내역을 알아본다.

어 있는데 독자와 서점의 반응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발행인 신대식씨는 전한다.

상업성이 없고 있는 ‘좋은 책’을 기관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역할분담하여 선정하게 되는 이같은 현상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게 출판인들의 중론이다.

公器의 성격이 짙은 기관들에게서는 양서출간이 일종의 모험으로 인식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펴내는 출판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상금과 선정된 도서 매입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난 68년부터 매년 선정·발표되는 ‘문화부 추천도서’는 한국출판공고(이사장 정진숙)의 양서보급지원금 2억 5천여만원으로 선정종별로 200여만원씩을 할당 구입, 각급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지난해의 경우 111종 233책을 선정한 ‘문화부 추천도서’는 “한햇동안의 우리 출판계를 총결산하는 의미 외에도 일반 독서대중의 책읽기에 유익한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 62년에 시작되어 “당대의 학문적 업적의 총결산이며 미래의 학문발전을 위한 귀중한 토대를 마련”한 ‘한국출판문화상’은 좋은 책을 쓰고 낸 저자와 출판사에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한 책을 쓴 저자나 편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상’은 수상자 2명에게 상패와 상금 각 2백 50만원을 수여한다. 우수한 책을 출간한 출판사나 연구소 12개사를 선정하는 ‘출판상’은 사전·문고·전집·기획·편집·사료정리·번역·아동·사진·장정·제작 분야로 나누어 상패를 수여한다.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이 달의 청소년도서 선정·보급사업’이 있다. 한국출판공



고교의 「독서」 과목 정식 채택 등으로 양서선정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고의 양서보급 지원금과 출판협회 청소년도서 선정사업 자금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격월간의 주기로 한 해 평균 70여종의 도서를 선정한다. 선정도서는 중당 300부 정도씩을 정가의 80%로 구입해 각급도서관·전국 직업훈련원·청소년 선도기관 등 3백여 곳에 기증한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600여종 17만여부를 구입해 배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후원하는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은 우수·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을 구입하는 액수로만 보자면 우리나라 최고의 상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大賞도서 1편에 2천만원, 우수도서 3편에 1천만원, 추천도서 5편에 각 5백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에 배포한다.

제1회 때 「현대 자본주의」(박성환 지음, 박영사)를 시발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서상목 지음, 법문사) 등이 선정되었다.

읽힐 수 있는 좋은 책 선정 바람직

그밖에 학술단체나 출판사 등에서 제정한 각종 학술상 및 문학상도 넓은 의미에서 우수도서 선정·지원 작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예진흥원의 경우는 작가나 출판사가 원고형태로 발간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원고들에 한하여 인쇄비와 조판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한편, 선정도서에 물적인 지원은 못해주지만 심적인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권장도서목록’과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우량도서선정’을 빼놓을 수 없다. ‘청소년권장도서목록’은 91년에 시작해 분기별로

선정, 지난해 12월말에 제8차분으로 30종을 발표해 연륜을 쌓아가고 있다. 직접적인 도서구입·배포는 없지만 신문·방송과 반사회보에 이르기까지 널리 홍보함으로써 청소년물 양서출간 출판사에 우회적인 도움을 준다. 이에 비해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우량도서선정’은 아동·청소년·일반 대상의 도서목록을 작성·발표한다. 선정된 도서는 약간씩의 부수를 구입, 상기 단체가 운영하는 마을문고·독서대학·이동도서관의 서가에 채운다고 박노열(독서지도 담당)씨는 전한다.

내용의 질 못지않게 책 한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북디자인에 관련한 우수도서선정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보문고 제정 ‘북디자인상’, 한국일보 출판문화상의 ‘장정’ 부문, 「월간디자인」 선정 ‘올해의 베스트 디자인’ 중 책분야 등이 그것이다. 다가온 출판시장 개방화 이후 상품으로서의 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코 소홀히 대접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다소 홀시받고 있다는 게 북디자인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책 장정의 팬시화추세가 우려스러운 정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지난 89년 제정돼 작년으로 3회에 이른 교보문고 ‘북디자인상’은 올해초 발표됐어야 할 제4회 수상작들이 아직 작품공모 발표조차 나지 않아 뜻있는 출판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담당자는 귀뜸한다. 우리나라 북디자인을 표지뿐만이 아닌 활자와 본문구성, 행간, 여백 등을 포함한 ‘토탈디자인’의 개념으로 확립시킨 공적을 가지고 있는 이 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상 소개된 단체들이 선정한 우수도서는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이팅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쇄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

단체 자체의 권위와 최고급의 전문가들이 대거 심사에 참여해 우리 학술수준과 출판문화의 역량을 보여주기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그 도서목록들은 일반독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데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문화부 추천도서목록이 발표되면 각 대형서점들은 특설코너를 마련해 한데 모아 선을 보이지만 독자의 발길이 뜸해 금방 다른 코너로 대체되는 것이다. 최고의 권위를 지닌 책들이지만 읽는이들에게는 버거운 책들이라는 이야기이다.

“출판정책 당국이 출판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하게 되는 우수도서는 당연히 훌륭한 학술서 위주로 뽑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제는 그 외연을 확대하여 전자출판 등에도 관심을 갖고, 또한 저작상의 대상 역시 고답적인 아카데미즘 이외에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교양수준의 다양한 내용과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일보」, 92.11.11)고 박종만(도서출판 까치 대표)씨는 제안한다. 출판계 내부와 순수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우수도서목록이 점차 ‘팔릴 만한 좋은 책’ 중심이 되는 현상은 그런 맥락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양서의 개념이 바야흐로 바람직한 양립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양서선정사업, 도서관업무로 이관돼야

앞서 언급한 「신간안내」의 선정방식뿐만 아니라 현재 교보문고측이 물밑준비 중인 ‘좋은 책 선정작업’은 그 비근한 예이다. 영업현장사원 5~10인이 한 조가 되는 20개조를 구성, 각 파트에서 ‘독자가 책값부터 물어볼 만한’ 좋은 책 10권씩을 선정한 뒤 사계권위자들에게 최종낙점을 의뢰하는 방식을 ‘개발’ 해낸 것이다. 그밖에 새해들어 ‘종로서적이 추천하는 컴퓨터책 베스트 20’ 등 여러 대형서점이 세분화된 분야별로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양서선정의 한 방법으로 추가된다. 이같은 활동은 소극적으로는 악서를 쫓아내고 적극적으로는 일반독자들이 책을 사는 과정에서 봉착하는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추천도서본연의 기능을 찾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신문광고를 이용한 대형 서점의 추천도서가 과연 ‘순수한’ 추천도서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는 이의가 제기될 여지가 많다. 하지만 교보문고의 과인수 홍보차장은 “팔릴 만한 좋은 책의 선정은 서점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

제이므로 ‘좋은 책’ 보다 ‘팔릴 만한’에 무게 중심이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양서’이든 ‘팔릴 만한 양서’이든 그 선정과정과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출판정책당국에 의한 양서지원 명목의 여러 추천도서 선정사업에 있어서는 주관단체의 공신력과 위상, 선정기준의 엄정준수 여부, 선정도서에 대한 단발성 지원, 구입도서 기준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거론된다. 주관단체의 경우 ‘특정전문가를 위한 전문서’ 등의 양서출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양서의 1차소비자인 도서관과 도서관협회 같은 곳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김성재 일지사 대표는 「출판연구」 제3호(한국출판연구소)에서 밝힌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실수요자가 정작 선정도서의 ‘수혜자’ 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선정과정에서 이권과 정실이 개입됐다는 향간의 소문도 들린다. 노모 교수는 책도 없이 목록만 보고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이므로 저자명과 출판사 이름만 보고도 양서를 선정해낼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책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실토했다.

출판연구소의 김희락 책임연구원은 양서선정작업이 이벤트성의 행사로 그치는 경우를 안타까워한다. 선정된 도서가 스테디셀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 배려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부연한다.

몇가지 노정된 문제점들은 그러나 양서의 시상·선정·추천 사업의 순기능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올바른 도서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활동내역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부활되고 수험능력시험이 시행되고 「독서」 과목이 정식으로 채택됨에 따라 타율적으로라도 독서인구가 크게 늘리라는 전망이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쏟아져나올 것은 자명하다. 「독서과의」가 이미 생겼다는 신문보도도 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양서선정사업은 더욱 내실을 기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출판인들은 입을 모은다.

— 김중식 기자